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CONSENT

가제 : 허락

저자 : Leo Benedictus

출판사: Faber

발행일: 2018년 봄

분량 : -

장르 : 소설/



- * 출판사 네 곳의 경쟁 끝에 **Faber**와 출판 계약 체결,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판권계약
- *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 누웠는데, 알고 보니 그곳이 영안실 침대고 몸이 꽁꽁 묶여 있다는 사실을, 이 상황이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처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한 느낌을 안겨주는 소설” – **Faber** 편집자 루이자 조이너

하루 아침에 젊은 갑부가 된 남자는 이미 평소와 같은 일상이 불가능해졌음을 깨닫는다. 홀로 살던 이모가 50대 이른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적게 잡아도 1,100만 파운드를 상속받게 된 이상,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며 늘 앉던 식탁에 늘 듣던 라디오를 들으려 늘 먹던 시리얼을 먹는 것조차 낯설게 느껴진다. 하지만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남자는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일단 산책을 하러 나선다. 자꾸 두근대는 심장과 껍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이상한 감정에 휩싸여 버스에 오른 그의 눈에 여행객으로 보이는 부부가 보인다. 남편이 작은 노트를 꺼내자 아내가 같이 들여다보는 모습, 이들 곁에 놓인 꽤 고급스러운 여행가방,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는 표정,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어느새 마음은 진정이 되고, 남자는 버스에서 내려 어느 식당에 들어간다. 그곳에서 적당히 떨어진 다른 테이블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를 발견한다. 한때 남자와 연인이었던 로라였다.

통화 중인 로라는 마치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다 듣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작지 않은 소리로 떠들어댔다. 남자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 미용사인 그녀가 부잣집 마나님의 호출을 받고 집으로 찾아가는 중이라는 이야기, 단골손님인 그 부인이 머리 손질에 까다로운 요구가 많다는 불평, 남편이 유명인사라는데 결혼을 했는지조차 의심이 된다는 의견까지, 로라는 수화기 너머 친구에게 쉴 새 없이 투덜대다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갑자기 자기 몸에 향수

를 뿌린다. 남자는 정확히 짚을 순 없지만, 로라가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직감이 든다. 지금 친구에게 한 이야기는 모두 사실일까?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고 식당 문을 나서는 로라를 남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기 시작한다. 그게 시작이었다.

‘스토커’라는 이름은 자신이 하는 일을 다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남자는 고해성사라도 하듯 독자를 향해 자신이 시작한 희한한 ‘일’ 또는 ‘직업’을 낱알이 떨어 놓는다. 관심을 끄는 대상을 골라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어디를 가든 따라가는 것. 남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자가 된 이후 바로 이 일을 시작했다. 대상은 대부분 여성이고, 한 사람을 따라가다가도 더 관심이 가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대상을 바꾼다. 한 명을 한 달 이상 쫓아다닌 적은 거의 없다. 집이나 사무실 밖에서 담배를 피는 척, 전화통화를 하는 척 기다렸다가 그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가능한 많이 엿듣는다. 휴대전화와 수첩에 그들의 이름과 상세한 정보를 기입하기도 한다. 남자는 그 누구도 자신이 관찰의 대상이 되었음을 인지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한다. 자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몰아야 한다.

타고난 이야기꾼이 아니라면서도 술술 풀어놓는 남자의 이야기는 잠시 귀를 기울인 순간 독자의 모든 호기심을 자극한다. 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을 벌일까? 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을까? 이렇게 시작된 궁금증은 남자가 들려주는 ‘대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대상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려는 남자의 집착 어린 탐색의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마치 공범이 된 것처럼, 관찰과 추적의 결과가 점점 더 궁금해진다. 이언 벅크스의 『말벌 공장』과 『롤리타』, 『미저리』의 요소가 언뜻언뜻 비치는 아주 독특하고 흡입력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레오 베네딕투스(Leo Benedictus)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광고회사에서 일하다가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가디언」 소속 기고가로 활동하면서 상을 수상하고, 2011년 데뷔소설 『The Afterparty』를 발표했다.

제목 : A SLEEPLESS SUMMER

가제 : 잠 못 드는 여름

저자 : Bram Dehouck

출판사: WORLD EDITIONS

발행일: 2015년 12월 3일(원서: 2011년)

분량 : 224페이지

장르 : 소설/ 스릴러



*** 2011년 ‘넥 에르쿨 포와로 상’, 2012년 ‘골든 누스 상’ 수상작, 크라임존 최우수 스릴러 상 후보**

*** 2011년 출간 이후 15,000부 이상 판매, 프랑스 판권 계약 체결**

벨기에 작은 마을, 블라스룩은 시간마저 가만히 흐르는 조용하고 평온한 마을이었다.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 있는 갈등도 물론 있었지만, 피상적으로나마 유지되던 블라스룩의 평화는 난데 없는 최첨단 시설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마을 외곽에 줄지어 들어선 거대한 풍력발전기. 마을의 발전과 앞으로 찾아올 변화에 마음 설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아름답기만 한 이 덩치 큰 기계의 날개가 바람을 가르며 돌아갈 때면 ‘웅-웅-’하는 낮은 소리가 새어 나왔다. 낮이면 다른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던 터빈 소리는 밤이 되어 주변이 고요해지면 어김없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고, 그러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잠들 수 있는 행운을 누리지 못하고 소리가 귀에 꽂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숙면은 바라지 못할 일이 되고 말았다.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직접 만든 소시지며 고기 파이를 가게에 딸린 작은 매점에서 판매하는 헤르만 브라케도 바로 그 불운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잠 못 드는 여름 밤이 하루, 또 하루 쌓이고 폭 자야 떨어지는 피로가 몸과 정신에 켜켜이 쌓여 헤르만을 서서히 미치게 만든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 그 이상이 되고 말았다.

“블라스룩에 벨기에 최초 풍력발전소 설립”이라는 제목의 헤드라인이 지역 신문에 뜬 날부터 블라스룩 운하 옆에 세워진 발전용 터빈이 마침내 가동을 시작하고 온 마을이 축제로 떠들썩했던 그 날까지만 해도 헤르만은 부푼 꿈에 젖어 있었다. 시장이 격앙된 음성으로 발전기의 가동을 알리는 연설을 마치자 친히 마을을 찾아온 장관까지 앞으로 블라스룩이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에 관한 핑크빛 전망을 내놓았다. 드넓게 펼쳐진 운하에 몰려든 사람들은 여기 저기서 고개를 쪽 빼고 뒷목이 빠근할 때까지 발전기 날개를 바라보았다. 헤르만네 가게 진열장에 놓인 소시지와 주민들이 ‘여름 파이’라는 별명까지 붙이며 큰 인기를 끄는 파이는 배고픈 구경꾼들이 몰려와 앞다퉁 먹어 치웠다. 아내와 헤르만은 그 날 저녁에 거둔 수익만으로도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한껏 신이 났다. 이대로 저 거대한 날개가 관광객들을 끌어 모은다면, 조만간 스페인 여행도 떠나고 가게도 넓히고 차도 아우디로 바꾸고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으리라. 시장의 연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을은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확신한 지 불과 5일 만에, 헤르만은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가게에 나섰다. 신나게 돈을 세고 잠들던 축제날 밤에 이

미 예고된 일이었다. 아래층 가게 냉장고가 고장이 났나 싶을 정도로 조용히 울리던 기계음에 헤르만은 침대에 누우려다 다시 가게로 내려갔었다. 냉장고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아내도 이미 꿀아떨어졌지만 헤르만은 컿가에 울리는 그 소리 때문에 꼬박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3일째 되던 날은 귀마개로 컿구멍을 틀어막았지만 소리는 귀마개를 뚫고 머릿속을 가득 울렸다. 그런 상태로 5일이나 지나자, 해가 밝아오면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벽에 생긴 얼룩이 기묘한 그림으로 번지고 양을 세려고 무수히 애를 쓰다가 왜 사람들이 이제는 양고기 대신 쇠고기를 더 많이 먹을까와 같은 아무 의미 없고 소용 없는 잡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몸은 점점 더 지쳐가는데 잠은 더욱더 잘 수가 없었다.

이야기는 정육점 주인 헤르만을 중심으로 조용한 마을에 찾아온 풍력발전소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 자세히 보여준다. 바로 이웃에 살고 있을 것만 같은 현실적인 등장인물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며 나름 해법을 고민하고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친근하기에 비극적인 상황임에도 폭발적인 웃음을 유발한다. 소설의 시작부터 블라스룩에 비극이 찾아오리란 사실은 모두가 직감할 수 있지만, 스무 명이 넘는 주민들이 하나둘 꺼내놓는 사연을 듣다 보면 모자이크처럼 짜 맞추어진 이야기가 어떻게, 어떤 비극으로 이어질지 쉽게 예상할 수 없다. 서서히 통제력을 잃어가는 사람들, 유혈이 난무하는 끔찍한 사건들, 두 번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한 마을과 그곳 사람들의 변화를 치밀하게 들여다본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브람 데후크(Bram Dehouck)는 벨기에 출신 소설가로, 『De minzame moordenaar(The Mild Mannered Murderer)』로 골든 누스 상(Gold Noose Award)과 쉐도우 상(Shadow Award)을 동시에 수상했다. 2012년 발표한 위 두 번째 소설로도 여러 상을 수상했다.

제목 : ALL THE BREAKING WAVES

가제 : 부서진 파도만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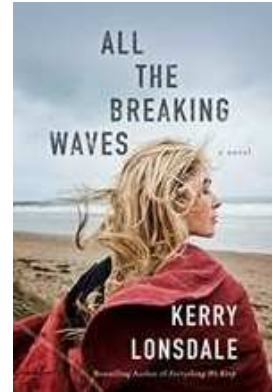
저자 : Kerry Lonsdale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6년 12월 6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소설/ 미스터리



* 아마존 북 에디터 선정 **“2016년 12월 문학&소설 부문 이달의 도서”**

* 데뷔 소설 **『Everything We Keep』** 이 7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화제를 낳은 작가의 두 번째 소설

* **“실연과 가족의 비밀,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을 초자연적인 요소와 함께 감동적으로 그린 이야기.”** – 베스트셀러 **『Echoes of Family』**의 작가 바바라 클레이폴 화이트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삶을 좌우한다면, 꿈쩍없이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몰리 브레넌은 가족을 갈가리 찢어놓은 사고 이후 그 고민에 답을 찾지 못하고 멀리 떠나는 방법을 택했다. 타고 자란 고향을 떠나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조용한 일상을 살게 된 몰리에게 또 다시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겨우 여덟 살밖에 안 된 딸, 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캐시가 미래를 내다보는 알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다시 찾아온 운명의 장난에 몰리는 사정없이 흔들리지만, 이번에는말로 제대로 답을 찾아야 한다. 딸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작정 도망친 과거의 기억과 숨겨온 비밀도 이제 다시 꼬집어내야 한다.

캘리포니아 퍼시픽 그로브의 해안가 마을에서 태어난 몰리는 해변이 곧 놀이터였다. 부드러운 모래 아래 반짝이는 바다유리는 어린 몰리에게 신비로운 보석처럼 느껴졌고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인어가 흘린 눈물이라는 이야기는 예쁜 유리만큼이나 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던 신비로운 전설과 동화는 스스로 원치 않은 예언가의 능력이 발휘되면서 모두 악몽으로 변질되어 갔다. 4세대를 걸쳐 집안의 여자들에게 전해 내려온 이상한 능력은 결국 몰리를 도망자 신세로 만들었다. 전설 속 인어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엄마는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아버지는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몰리의 곁에는 외할머니만 남았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몰리는 멀리 떠나기로 결심했다. 평생의 사랑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오웬에게도 가슴 아픈 작별을 고한 채, 그렇게 몰리는 낯선 곳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12년의 세월이 흐른 뒤 재능이자 고문인 예언가의 능력을 감춘 채 몰리는 대학에서 예술사를 가르치고 남는 시간에는 바다유리로 공예품을 만들면서 딸 캐시를 키우며 살았다. 집안 여자들의 이상한 능력을 죽을 만큼 싫어했던 아버지의 분노와 그로 인해 집안에서 끓이지 않던 소란과 폭력, 몰리는 캐시만큼은 그런 기억 없이 사랑 받는 아이로 자라게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티고 또 버텼다. 하지만 캐시에게도 결국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물리의 소박했던 바람은 깨져버렸다.

같은 반 친구 그레이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치이는 장면을 환각처럼 미리 보고 만 캐시는 그레이스에게 조심하라고 계속 당부하고 헬멧을 꼭 써야 한다고 쫓아다니며 잔소리를 한다. 결국 사고는 일어났지만, 캐시의 이 끈질긴 노력 덕에 그레이스는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래의 일이 눈 앞에 나타날수록 캐시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고, 예견이 정확해질수록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상한 눈으로 캐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물리는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분노했었는지 잘 알기에 캐시에게 학교에서는 예지력을 티 내지 말라고 다그칠 수도 없었다. 결국 학교에서 아이들과 선생님을 놀라게 만든 사건들이 이어지자 교장은 캐시의 정신 상담을 권하기에 이르고, 물리는 캐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오래 전 떠나온 고향,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야 한다. 이 특별한 능력을 스스로 제어하는 법을 알려줄 사람은 세상에 오직 할머니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캐시의 눈 앞에 물리가 목숨을 잃는 장면이 나타나고, 남은 시간은 딱 5일밖에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어린 딸만 남기고 생을 끝내지 않으려면, 5일 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나 다시 찾은 고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난관이 물리를 기다리고 있다.

가슴 속에서 놓아버리지 못한 죄책감과 꼭 눌러 놓았던 과거와 직면해야 하는 순간의 고통, 용서가 가진 놀라운 힘, 사랑으로 치유되는 깊은 상처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케리 론스데일(Kerry Lonsdale)은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전 세계 여성 소설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소설 작가협회’를 설립했다. 2016년 8월에 출간된 데뷔 소설 『Everything We Keep』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대열에 올랐다.

제목 : THE KILLING DRINK

가제 : 죽음의 음료

저자 : Jamey Bradbury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

분량 : -

장르 : 소설/ 성장소설



*** 열띤 경매 절차를 거쳐 윌리엄 모로우와 수십 만 달러 규모로 복미 출판 계약 체결**

*** 알래스카에 15년째 살면서 소설과 지역 신문 기사를 써온 신예 작가의 데뷔작**

할아버지가 지은 알래스카의 포근한 집에서 태어나 꼬맹이 시절부터 숲을 누비며 살아온 트레이시는 남동생, 아빠와 셋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갔다. 집에서 두 남매에게 산수와 글자를 가르쳐준 엄마가 사고로 가족들 곁을 떠나기도 했고, 아빠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기도 해서 얼마 전부터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트레이시의 가슴 속에는 돌아가신 엄마가 어릴 때부터 당부하고 또 당부한 가르침이 교실 칠판 앞에서 배우는 공부보다 훨씬 더 깊이 남아 있었다. 집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멀리 혼자 돌아다니지 말 것, 손이 지저분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지 말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게 만들지 말 것. 땀을 흘리고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일이 세상 무엇보다 재미 있고 흥미진진한 트레이시로서 처음 두 가지 당부를 지키기가 어려웠지만, 세 번째 약속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후로 그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다.

드넓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달리고 뒹굴던 트레이시는 작은 공간에 수십 명이 빼곡히 앉아 있는 교실 자체가 영 적응이 되지 않았다. 반 친구들도 자신들과 사뭇 다른 트레이시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다. 역사 시간, 러시아인들이 알래스카에서 어떤 사냥을 했는지 선생님이 설명하던 중 사냥에 대해서라면 전문가나 다름 없는 트레이시는 참지 못하고 사냥에 대해 줄줄 설교하기 시작했고, 이 일은 그럴지 않아도 트레이시를 이상한 애 취급하는 아이들에게는 딱 좋은 놀림거리를 제공한 셈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남학생을 포함해 전교생을 통틀어 달리기 실력이든 주먹질 솜씨든 일등인 트레이시는 쉬는 시간에 자신을 은근히 놀리거나 괴롭히는 아이들을 냅다 패주기 일쑤였고 아버지는 일년 동안 열 번도 넘게 교장실에 불러와야 했다. 트레이시에게 한 방 맞은 아이들은 머리며 코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반면 트레이시는 상처 하나 나지 않아 늘 학교에서는 맞은 아이들이 맞기 전에 저지른 못된 장난은 신경도 쓰지 않고 트레이시의 폭력성만 문제 삼았다. 이것만으로도 엄마와의 약속을 깬 것이나 다름 없는데,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학교 아이들처럼 아는 사람도 아닌, 낯선 이가 트레이시 앞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된 것이다. 문제는 그 피를 자신이 낸 것인지 아닌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건은 숲에서 벌어졌다.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숲 가장자리에서 그 낯선 이를 보는 순간

트레이시는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 분명 모르는 얼굴인데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날카로운 칼에 맞아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상태로 발견된 이 남자의 몸에 남은 상처는, 분명 트레이시가 사냥 나갈 때 가지고 다니는 칼자국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트레이시가 사람을 죽일 뻔한 걸까? 하지만 하얀 눈을 흥건히 적신 시뻘건 핏자국에 너무 놀란 탓인지, 남자를 발견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트레이시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수수께끼 같은 사건과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던 트레이시는 코 앞으로 다가온 개썰매 경주 덕에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대회에 아버지가 출전하는 만큼 트레이시도 준비 과정을 돕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사는 집에 웬 십대 남자아이 하나가 나타났다. 제스 곳원이라고 자신을 밝힌 이 아이는 지낼 곳을 찾는 중이었고, 아버지는 아무 의심 없이 제스를 받아들였지만 트레이시는 본능적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키우는 개들과 소리내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었던 능력을 타고난 탓인지, 트레이시의 눈에 제스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다. 숲 속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이어, 뭔가 불길한 일이 임박한 것을 느낀 트레이시에게 점점 더 이상한 변화가 감지된다. 군중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낯선 이가 트레이시에게 지어 보인 알송달송하고 위협적인 표정, 인적이 드문 숲 가장자리에서 발견된 부츠 발자국, 분명 누군가가 트레이시와 가족들을 노리고 있다. 누가, 대체 왜, 무엇을 바라는 걸까? 가족을 지킬 사람은 트레이시뿐이다.

사람보다 동물과 교감을 나누는 것이 익숙한 야생 소녀, 트레이시의 성장기이자 한 가족을 위협하는 어두운 그림자의 실체를 쫓아가는 호러 서스펜스 소설로, 진솔하고 담백하게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 주인공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독자를 잡아 끄는 매력적인 이야기다.

<저자 소개>

제이미 브래드버리(Jamey Bradbury)는 일리노이 주에서 태어나 15년째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예술석사를 취득하고 소설가 존 어빙(John Irving)의 조수로 2년간 일했다. 평화봉사단의 일원이기도 하며, 알래스카 원주민 사회복지국에서도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lack Warrior Review」 등 여러 간행물에 소설을 기고해 왔으며 「Alaska Dispatch News」에 논픽션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NON- FICTION

제목 : ONCE WE WERE SISTERS

가제 : 언니와 내 곁에 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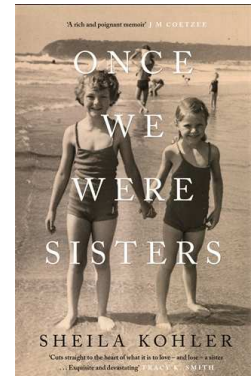
저자 : Sheila Kohler

출판사: Canongate (UK), Penguin (US)

발행일: 2017년 2월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 “성차별과 여성혐오 문화의 울림이 전해지는 비극적인 이야기이자 그러한 문화에서 벗어나 작가가 된 한 젊은 여성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 – 조이스 캐롤 오츠
- * “가슴 아픈 사연, 긴장감 넘치는 고백이 작가가 평생 일군 능력과 타고난 천재성으로 잘 합쳐진 책” – 에드문드 화이트

영화 <비커밍 제인>과 <크랙>의 원작자인 남아프리카 출신 작가 셰일라 콜러가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언니가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후부터였다. 그녀가 서른 일곱이 된 10월의 어느 날, 열일곱 살에 떠나온 고향에 계속 살고 있던 두 살 많은 언니가 형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즉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어쩌면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은 이후 수십 년 동안 묵직한 죄책감과 후회로 밀려오고, 언니와의 추억과 머릿속에 새겨진 언니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의 등장인물로 소설에서 되살아났다. 왜 더 빨리 언니를 지키지 못했을까? 언니의 죽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사고일까, 살해일까? 아직 아파르트헤이트의 잔재가 남아 있던 남아프리카에서 안타깝게 숨진 언니를 그리며, 저자는 이 비극적인 사태가 애당초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거대한 저택에서 부유하게 자란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숨이 막힐 듯한 엄마의 통제와 상류층의 생활, 한창 삶을 즐겨야 할 나이에 잘못 택한 결혼의 길, 그리고 비참한 결말을 예고했던 징후들까지, 저자는 후회와 미안함을 담아 두 사람의 특별했던 성장 과정을 하나하나 떠올린다.

목재 판매일을 하던 부유한 백인 집안에서 태어난 두 자매는 요하네스버그 외곽의 거대한 부지에 지어진 대저택에서 온갖 특권을 다 누리며 살았다. 정원에 골프장과 연못까지 갖추어져 있고 수많은 하인들이 집 안팎에서 살림을 거들던 풍족한 생활은 아버지가 느닷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끝이 났다. 동화책에나 나오는 꿈 같은 시절은 고압적이고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만들려는 엄마로 인해 혼란스러운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엄마는 자매를 데리고 주거지를 옮겨 다녔다. 나중에는 엄격하기로 소문난 성공회 기숙학교에 입학해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삶을 경험했다.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겪으며, 저자와 언니의 끈끈한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둘이 함께 파리와 로마로 떠난 여행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행은 나중에 후회로 가득 채워진 결혼으로 이어져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예일 대학교 학생이던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저자는 스무 살에 첫 아이를 낳고, 언니도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접한다. 그렇게 자매는 각기 다른 곳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려갔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형부는 점점 더 폭력적인 본성을 드러내고, 저자의 남편 또한 신뢰를 잃어갔다. 어쩌면 그때, 모든 징후가 나타났던 그때 언니를 보호했어야 한다는 안타까움은 저자에게 남은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다.

저자는 좋았던 시절, 괴로웠던 순간들을 오가며 서로 미처 알지 못했던 비밀을 찾아내고 언니가 왜 그토록 미스터리한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 풀어낸다. 그리고 이 가시지 않는 의혹과 아쉬움이 저자가 소설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한 동력이 된 과정을 설명한다. 섬세하면서도 저자 특유의 날카로운 문체로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과 언니를 향한 깊은 사랑을 그린 감동적인 회고록이다.

<목차>

시작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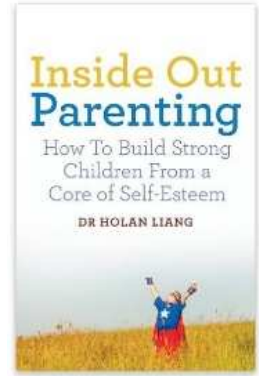
1. 눈
2. 함께
3. 첫 만남
4. 구혼자들
5. 토콜로시
6. 이야기
7. 지식
8. 결혼
9. 이름
10. 임신
11. 여행
12. 진실과 허구

(이하 생략, 총 48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셰일라 콜러(Sheila Kohler)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소설가로 『Dreaming for Freud』, 『Becoming Jane Eyre』, 『Cracks』 등 열네 권의 소설을 썼다. 『Cracks』은 IMPAC 더블린 문학상(IMPAC Dublin Literary Award) 후보에 오르고 에바 그린 주연의 영화로 제작됐다. 오 헨리 상(O'Henry Prize)을 두 차례 수상하고 오픈 픽션 상(Open Fiction Award), 윌라 카터 상(Willa Cather Prize) 등도 수상했다. 현재 뉴욕에 살면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제목 : INSIDE OUT PARENTING
가제 : 속까지 들여다본 양육 전략
저자 : Holan Liang
출판사: Bluebird
발행일: 2017년 4월 6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양육



- * 아동 정신의학자가 전문 지식과 개인적인 경험을 종합하여 전하는 효과적인 양육 방법
- *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회복력, 사회적 능력으로 아이의 내면을 탄탄하게 키워 삶의 모든 영역의 토대가 되도록 이끄는 현명한 기술

어떻게 하면 아이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전문적인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한 것과 실제로 아이를 수월하게 키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신의학 공부를 하고 아동 심리와 정신건강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양육 전문가’라 자부했던 저자는 첫 아이를 낳고서야 아이가 무작정 떼를 쓰고 울어댈 때 자신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엄마임을 절감했다고 고백한다. 부모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모들이 집착에 가까운 관심을 자녀에게 쏟아 내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솔한 정보를 현실에서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 저자는 그간 쌓아온 지식이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데 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학자다운 탐구심으로 심리학과 신경학, 전 세계 아동발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양육 방법을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현실에서 아이에게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상세히 소개한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법,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스스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자부심과 어떤 난관이 닥쳐도 번쩍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은 부모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키워줄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과 아이에게 끊임없이 극복시켜주고 어르고 달래고 뇌물을 먹이며 꼬드기는 방법 대신 아이와 성숙한 관계를 맺고 그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이 모두 제시된다.

성인기에 나타나는 정신 건강의 문제 중 75 퍼센트는 18세 이전에 시작되고, 50 퍼센트는 14세 이전에 시작된다. 모든 부모가 자신의 아이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한 어른으로 자라길 바라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릴 때부터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의도치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는 일이 똑같이 생겨도 점차 그 기억을 털어내는 아이가 있는 반면, 평생 정서적인 상처를 안고 사는 아이가 있다. 저자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 혹은 회복력이 바로 이 차이를 만들고, 아이든 어른이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또한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이 핵심 요소는 아이가 조금씩 발달하고 새로운 기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함께 형성되며, 유전적인 요소도 분명 영향을 주지만 양육 방식과 환경이 그보다 큰 영향을 준다. 저

자는 우리의 뇌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말랑말랑한’ 가변성 기관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아이의 뇌 발달이 진행되는 과정에 맞게, 소위 말하는 ‘스폰지처럼’ 지식을 빨아들이는 시기에 아이의 평생 행복을 좌우할 회복력과 자부심을 키워주는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출생 직후부터 아이가 일곱 살이 되기 전에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저자가 직접 시도해보고 실패했던 사례들이 중간중간 코믹한 사연으로 포함되어 읽는 재미를 더하고 전문적인 사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한 유익한 육아 정보서다.

<목차>

머리말

중심

1. 고정 요소 – 유전: 난자, 그리고 정자들의 시험
2. 비고정 요소 – ‘자부심’: 회복력, 자기 가치 등등

토대

3. 1층 – 사회적 기술: 왜 어떤 아이들은 파티마다 초대를 받을까
4. 2층 – 정서적 안정: 성질 내는 버릇과 눈물을 통제하는 법
5. 3층 – 행동과 자기통제: 파리대왕, 앨리스의 케이크

표면

6. 4층 – 지성: 호랑이 같은 부모가 나쁜 것만은 아닌 이유(오히려 더 나은 이유)
7. 5층 – 창의력과 양심: 공부만 하고 절대 안 놀았다는 대답의 진실, 부모는 안다
8. 6층 – 정체성, 성별, 인증: 왜 엄마 꿈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을까?

맺음말

<저자 소개>

홀란 량(Holan Liang)은 대만에서 태어나 세 살 때 영국으로 건너왔다. 정신의학 전문의로 런던 남부에서 환자들과 만나 상담하고 개인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육아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제목 : THE ART OF LEADING COLLECTIVELY

가제 : 총체적 리더십의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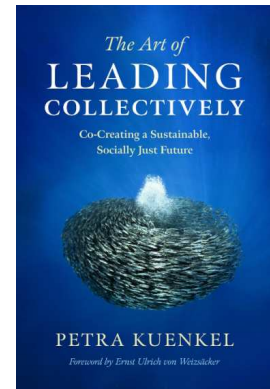
저자 : Petra Kuenkel

출판사: Chelsea Green Publishing

발행일: 2016년 1월 20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경영



- * “현재와 같은 복잡한 세상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모아 전략을 세우고 총체적 리더십을 동원해야 한다. 저자는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이러한 리더십을 명확한 개념적 틀 속에서 설명한다.” – 『*Navigating Complexi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공저자 대니 번스
- * “기업, 정부, NGO 모두 협력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 시작에 총체적 리더십이 있다.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 리더십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 독일 ‘세이브 더 칠드런’ CEO, 카트린 빌란트

기후 변화, 물 부족, 에너지원의 불안정성, 부당한 노동력 착취, 불평등의 심화 등 전 세계가 지속 가능성을 뒤흔드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어느 한 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이 난감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까?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변화 방안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길을 제시해온 저자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해답이라고 설명한다.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이 아닌, 협력을 강화하고 그룹 전체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총체적 리더십’이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이다. 하지만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개개인의 가치가 중시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같은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도록 할 수 있을까? 이는 지속 가능성과 사회 변화를 연구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저자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답을 제시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시스템의 변화, 리더를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닌 협력을 위해 애쓰는 일원으로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이유와 그 속에 담긴 의미, 조직을 구성하는 리더가 생산성보다 협력을 중시하도록 다시 교육해야 하는 필요성, 제각기 다른 그룹마다 지속 가능성을 일차적 목표로 삼도록 관리하는 방법 등 저자가 20년 가까이 진행해온 연구와 실무에서 얻은 교훈이 상세히 소개된다.

전 세계 다양한 조직과 시스템을 이끄는 리더가 협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세상은 자연스레 인권을 중시하는 체계가 자리를 잡고 경제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된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시작 단계부터 협력을 최종 목표로 삼아 계획을 세울 것, 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현재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할 것, 협력을 위한 변화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기존의 전략을 조정할 것, 바꾸어야 하는 것과 강화해야 하는 것,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것,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총체적인 노력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지 확신을 심어 줄 것, 이 네 단계 실천 전략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총체적 리더십의 과정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변화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검증된 이론과 다양한 전략, 과거의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여 큰 어려움 없이 읽으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각자의 조직과 상황에 맞게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부. 난관을 기회로

1. 복잡한 문제 앞에서 협력은 어떤 도움을 줄까
2. 개인에서 전체로: 패러다임의 변화
3. 더 나은 공동 개발이 필요한 이유

2부. 총체적 리더십의 영역

4. 개념적 배경
5. 인간의 능력을 재발견하다
6. 총체적인 리더가 되려면
7. 협력의 탐색

3부. 총체적 리더십의 효과

8. 변화의 시작, 리더십의 강화
9. 패턴 분석
10. 실무 그룹에 힘을 실어주어라
11.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도록 하라
12. 총체적 실천

(이하 생략, 총 4부, 18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페트라 쿠엔켈(Petra Kuenkel)은 지속가능성 전략을 수립하는 컨설팅 업체 ‘클럽 오브 로마 (Club of Rome)’의 일원이자 협력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는 비영리단체 ‘Collective Leadership Institute’의 창립자 겸 총 책임자를 맡고 있다.

제목: GET WELL SOON

가제: 과거를 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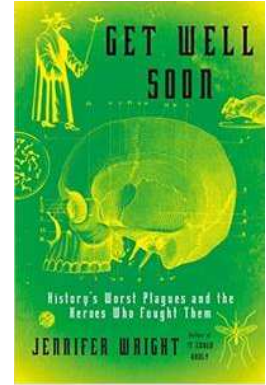
저자: Jennifer Wright

출판사: Henry Holt and Co.

발행일: 2017년 2월 7일

분량: 336 페이지

장르: 의학/역사



* “선페스트, 천연두, 장티푸스 등 역사상 대규모로 번진 다양한 전염병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가볍게 접근한 책” - 「퍼블리셔스 위클리」

* “과거에 질병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알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저자의 믿음이 담긴 전염병의 역사” - 「커커스 리뷰」

1518년, 알자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프라오 트로페아라는 여성이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문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춤을 멈출 수가 없다는 점이었다. 프라우는 6일 동안 쉴 새 없이 춤을 쳤고,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서른네 명도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상한 춤사위에 시달리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 무려 400명을 넘어섰다. 17세기 말, 영국에서는 평소에도 괴짜로 잘 알려진 신사가 품위 넘치는 자신의 집에서 희한한 모임을 열었다. ‘코 없는 사람 클럽’이라 이름 지어진 이 모임은 매독으로 코나 신체 부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사교 클럽이었다. 20세기가 막 시작된 무렵에는 뉴욕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아일랜드 출신의 여성이 장티푸스에 걸렸다. 그녀는 ‘장티푸스 메리’라는 악명 높은 이름으로 역사에 길이 남는다. 수많은 사람들을 덮쳐 어마어마한 피해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결과를 낳은 질병의 역사는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 일으킨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당시 사람들이 병에 대처한 방식이나 반응은 너무 이상해서 믿기 힘들 정도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류 역사에서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남긴 전염병을 선정하여 그 기괴하고도 안타까운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몸을 던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낸 영웅들을 소개한다. 상세한 조사로 수집한 풍성한 역사적 자료에 타고난 이야기꾼으로서의 실력과 강력한 유머 감각을 조합하여 역사의 한 장을 수놓은 전염병이 사회와 인류 전체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살펴본다.

1850년, 런던의 어느 동네에 설치된 우물을 폐쇄하도록 당국을 설득해 콜레라 확산을 막은 영웅 존 스노우가 사실 한 사람의 남자로 보서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저자 나름의 흥미로운 분석이 가미된 이 의학 역사서에는 2세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덮친 전염병부터 현대 사회를 괴롭히는 에이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염병이 소개된다. 저자는 단순히 질병의 발생 배경과 확산된 상황을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엄청난 사태를 맞이한 사회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중점을 둔다. 중세 시대에 발생한 무도병은 그 시대 분위기를 감안하면 드물게 병든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고 너도나도 도와주려고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티푸스 메리와

스페인 독감은 개인의 이기심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낳은 안타까운 사례에 속하고, 새로운 의학 기술이 와전되거나 어설픈 의사의 등장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사연도 함께 전해진다. 저자는 잘못된 의학 상식과 사적인 욕망, 무분별하게 확산된 틀린 정보가 발생시킨 영향을 짚어보면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반드시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며, 지역사회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과 싸우려 할 것이 아니라 병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당부한다.

흥미진진한 역사와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을 상기시키는 역사서다.

<목차>

머리말

안토니우스 역병 - 자고로 리더는 정신이 말짱하고 침착한 사람으로 뽑아야 하는 법

선페스트 - 개구리는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 역사책을 읽는 것이라면 몰라도.

무도병 - 사람을 마녀로 몰아 태우지 말고 좀 친절하게 대합시다

천연두 - 백신이 최선이라 전해라

매독 - 성병을 수치스러워하다 온 천지로 퍼진 사연

결핵 - 질병을 멋지다 말하지 말자

콜레라 - 일반적인 지혜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부터 검증하시길

나병 - 훌륭한 사람 한 명이 변화를 만들어낸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장티푸스 - 병이 났으면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맙시다

스페인 독감 - 검열 실패

기면성 뇌염 - 급속히 발전하는 의학, 잘 쫓아가야 한다

뇌엽절리술 - 의학적인 지식은 별로 없이 말만 많은 돌팔이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소아마비 - 지역사회와 리더, 과학자가 힘을 합하면 세상을 구할 수 있다

맺음말 - 과거의 교훈

<저자 소개>

제니퍼 라이트(Jennifer Wright)는 뉴욕에 살면서 「New York Observer」, 「Salon」, 「Cosmopolitan」, 「Glamour」, 「Popular Mechanics」, 「Maxim」 등 다양한 간행물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2015년 저서 『It Ended Badly: Thirteen of the Worst Breakups in History』를 발표했다.

제목 : BRILLIANCE AND FIRE

가제 : 다이아몬드, 그 반짝임 혹은 번뜩임

저자 : Rachelle Bergstein

출판사: Harper

발행일: 2016년 6월 7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역사



* 바다와 세기를 건너는 동안, 다이아몬드는 보석의 왕으로서 시민과 왕들 위에 군림했다. 버그스타인은 그 이유와 방법을 친숙하면서도 권위 있게 기술하고 있다. — 샘 와슨, (*'Fifth Avenue, 5 A.M.'*의 저자)

* 시대를 불문하고 신비한 힘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보석, 다이아몬드의 흥미로운 역사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 문구는 우리 모두에게 참 친숙하게 다가온다. 누구도 이 말에 의구심을 갖거나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는다. 아름답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영원한 약속과 믿음, 별,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확고한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다이아몬드에 그런 문구가 당연한 따라다니기 시작했을까? 수많은 보석 중에서도 하필 왜 다이아몬드가 결혼과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문화적 상징이 되었을까? 수 세기가 흘러도 변함없이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다이아몬드의 매력은 무엇일까? 앞선 저서에서 신발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분석하여 세계 각지의 관심을 받았던 저자가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빛나는 보석, 다이아몬드를 향한 인류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의 역사를 추적한다. ‘다이아몬드의 문화적 전기’라고 밝힌 이 책은 이 단단한 보석을 향한 사람들의 끈질긴 집착과 열정이 낳은 매혹적이고 때로는 놀라운 이야기들과 함께 ‘영원성’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쉴 틈 없이 노력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18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대부분을 생산해낸 남아프리카 지역의 광산, 여기서 얻은 다이아몬드를 독점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든 업체들, 다이아몬드를 몸에 휘감고 찬란한 광채를 뽐낸 스타들,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도록 세심한 작업을 해온 무대 뒤의 사람들, 이 모든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저자는 이제 70대에 접어드는 할머니가 유독 다이아몬드를 열렬히 좋아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레 이 특별한 보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2차 대전 직후 할아버지와 만나고된 세월을 견뎌내고 자식들을 키워내면서 할머니는 갖은 고생을 다 했지만, 기념일마다 할아버지가 내미는 작은 다이아몬드 하나면 그간의 수심과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듯했다. 반짝이는 돌멩이 하나가 어떻게 이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저자는 정교하게 깎이고 다듬어진 표면처럼, 다이아몬드에 따라다닌 의미 또한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먼 옛날, 한때는 다이아몬드가 유령을 쫓는 힘이 있다고 여겨졌다. 맑고 투명한 다이아몬드는 죽음을 피하게 해주지만 불순물이 섞인 것은 되려 죽음을 부른다고 여겨지던 때도 있었다. 아이를 잘 낳게 해준다거나, 잘못해서 삼키면 내장이 다 파괴된다거나, 헤어진 커플을 재결합시키는 힘이 있다는 등 다이아몬드에 설명하기 힘든 기이한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믿음이 전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중세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일자리가 잘 구해진다고 믿었고, 홀로코스트 시기를 견뎌야 했던 이들의 후손들에게 다이아몬드는 어디로든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재산이었다. 17세기 인도 마하라자 왕은 다이아몬드에 미스터리한 마력이 숨어 있다고 여겨 보물처럼 아꼈고,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후 대호황 시대가 도래하자 뉴욕에 살던 부유층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다이아몬드를 적극 활용했다. 저자는 다이아몬드에 얽힌 이처럼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그와 같은 이미지가 등장한 배경을 상세히 조사하여 컬러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전한다.

<목차>

- 1장. 구매자들: 미국의 부호들은 어떻게 다이아몬드에 심취하게 되었나
 - 2장. 구하려는 자들: 다이아몬드 산업을 쟁탈한 허약한 영국 남자의 이야기
 - 3장. 연인들: 젊은 여성들은 언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를 고대하기 시작했을까 (1부)
 - 4장. 과시욕: 작은 돌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홀린 까닭, 그 돌에 사로잡힌 미국
 - 5장. 긍정주의자들: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대공황을 겪고도 살아남은 산업
 - 6장. 판매자들: 젊은 여성들은 언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를 고대하기 시작했을까 (2부)
 - 7장. 여왕들: 윌리스 심슨이 다이아몬드를 확보한 사연
 - 8장. 스타들: 광고 업체들의 다이아몬드 활용 전략
-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레이첼 버그스타인(Rachelle Bergstein)은 뉴욕 바사르 컬리지를 졸업하고 출판 에이전시에서 편집 컨설턴트를 맡고 있다. 첫 번째 저서로 『Women from the Ankle Down』을 발표했다.

제목 : LIFE AT THE DAKOTA

가제 : 다코타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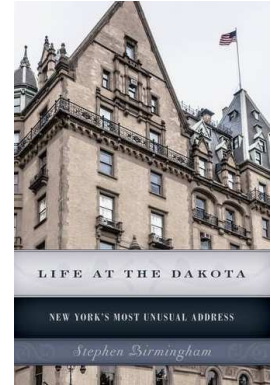
저자 : Stephen Birmingham

출판사: Lyons Press

발행일: 2016년 8월 16일

분량 : 270 페이지

장르 : 역사



*** 전자책 출간 6개월 만에 약 10,000부 판매, 2016년 11월 기준, 「월 스트리트 저널」 전자책 베스트셀러 6위**

*** “부자, 권력자, 특권층의 습성에 대해서는 저자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 「LA 타임스」**

*** “맨해튼 서부에 굳이 살지 않아도,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건물의 세세한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커커스 리뷰**

1800년대 후반, 맨해튼 어퍼 이스트사이드에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호화 아파트 건물이 들어섰다. 싱거 재봉틀 회사의 공동 설립자로 거물급 인사가 된 에드워드 클라크가 세운 이 건물에는 시내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로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지의 경계지 명칭을 그대로 본 따서 장난 삼아 지은 “다코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독일 르네상스 시대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눈에 확 띄는 외관은 섬세하고 복잡한 장식으로 가득한 건물 정면의 모습이나 당시로서는 아주 독특한 인테리어 디자인, 센트럴 파크를 매섭게 노려보는 가고일 장식까지 모든 면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당대 잘 나가는 지식층, 예술가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로부터 1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코타 아파트는 유명인사 중에서도 괴짜들로 소문난 인물들의 보금자리로 그 명성을 이어갔다. 우리 모두의 뇌리에 박힌 프랑켄슈타인의 얼굴, 공포영화와 스릴러, 범죄 영화의 지존으로 꼽힌 배우 보리스 카를로프와 모델 겸 영화배우 로렌 바콜, 뉴욕 필하모닉 등 전 세계 유명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탄생시킨 레너드 번스타인, 다코타 아파트 최초의 흑인 입주자가 된 가수 겸 작곡가 로버타 플랙, 그리고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과 그의 아내 오노 요코까지 다코타 입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상류층의 삶과 역사를 연구하고 분석한 고전적인 저서를 남긴 저자가 1979년에 쓴 이 책은 다코타 아파트에 한 세기 동안 차곡차곡 축적된 흥미진진한 역사와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전한다. 지난 해, 전자책으로 재출간되자 6개월 만에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다.

재봉틀 사업으로 재벌이 된 에드워드 클라크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소에 9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때부터 이미 다코타 아파트는 관심의 대상이 됐다. 저자는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부터 걸로 봐서는 있는 줄도 모르게 마련된 수영장과 비밀 복도, 정확히 방이 몇 개인지 알 수 없는 구조까지 이 건물만큼 희한한 건축물도 드물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이 건물에 살았던 엉뚱한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건물뿐만 아니라 뉴욕의

사회적 변화와 유행, 미국의 다른 대형 도시에서 나타난 변화를 함께 제시한다. 또 로코코 양식으로 호화롭게 장식된 아파트 지붕과 운동장 같은 넓은 방이 갖추어진 고급 아파트는 센트럴 파크의 분위기는 물론 인근 지역의 생활 수준과 유행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짚어본다. 재미 있는 건물을 통해 뉴욕의 변화 양상을 함께 조명하는 특별한 역사서다.

<목차>

1부. 에드워드 클라크의 어리석은 판단

1. 덮개의 시대
2. “하지만 상류층을 위한 곳은 아닙니다.”
3. 클라크와 싱거 재봉틀
4. 건축
5. 이스트 사이드, 웨스트 사이드
6. 속물의 반전
7. 계층 vs. 인기
8. 유명

2부. 크리스마스에 찾아온 위기

9. 1960년의 혼란
10. 구조대

3부. 공동 운영: 협력 (총 2장)

4부.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총 1장)

5부. 문제와 해결 (총 9장)

<저자 소개>

스티븐 버밍엄(Stephen Birmingham)은 윌리엄스 컬리지를 졸업하고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쳤다. 주로 미국의 상류층에 초점을 맞춘 글을 쓰고 『Our Crowd: The Great Jewish Families of New York』, 『The Grandees: The Story of America's Sephardic Elite』, 『The Rest of Us: The Rise of America's Eastern European Jews』 등 서른 권이 넘는 저서를 발표했다.